

■ 권중달교수의 역사칼럼<2>

결실필다(闕失必多)

빠지고 잃어버린 것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예로부터 누구나 똑똑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남보다 잘나야 하고, 멋져야 하고, 아는 것도 많아야 하며, 그 위에 잘 생기더라도 하면 금상첨화이다. 그래서 부모 된 사람은 자기 자식에게 똑똑하게 되라고 가르친다.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과 경쟁하여 이기려면 똑똑해야 하기 때문 이란다.

그래서 교육은 사람이 어떻게 똑똑해 질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우리는 과거에 조상들이 너무 몰라서 외국에게 침략을 당했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난히 자녀들을 똑똑하게 기르는데 목표를 둔 것도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그래서 그러한지 요즈음 신문을 펼치면 방송을 듣던, 혹은 그 흔한 sns라는 것으로 전해지는 내용을 보면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다. 보통 사람이면 감히 생각지도 못한 다른 사람의 현미경으로나 보아야 할 결점을 발견하고 이를 따지고 꼬집는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배가 산(山)으로 간다고 했던가? 우리 사회에 그리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나라 되어 가는 꼴을 보면 배를 산(山)으로 끌고 가려는 듯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사실 역사책을 펼쳐서 읽다 보면 이러한 똑똑한 사람의 일화가 많이 눈에 띈다. 그 가운데 자치통감 첫머리에 나오는 지백(智伯)은 똑똑한 사람의 대표라 할 만 하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다고 전하는데 그 이유는 그는 재승덕(才勝德)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남이 갖고 있지 않은 재주를 다녔이나 갖고 있었지만 오직 한 가지 덕이 없어서 실패하였다는 설명이다.

똑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고 못 참고 지적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화합을 깨트리는 장본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는 때를 맞는다. 꼭 이러한 사람이 지난 번 회에서 말했던 북송 진종(眞宗) 때의 구준(寇準, 961~1023)이다. 그는 똑똑했다. 그리고 과단성도 있었다. 그래서 일찍이 발탁되어 북송의 정치

를 이끌었다. 그러나 재상에서 쫓겨났고, 그 이유를 몰라 하는 그에게 장영(張詠)은 넌지시 후한대의 광광전(霍光傳)을 읽어보라고 권고하였고, 그는 이를 통하여 장영이 자기에게 불학무식해서 그랬노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을 알았다.

사실 그 후로 진종도 구준의 똑똑함을 높이 사기는 했지만 그가 총애하는 재정책임자인 삼사사(三司使) 임특(林特)과 자주 다투었다. 구준은 마치 자기가 제일 똑똑한 것처럼 진종 앞에서 사사건건 임특의 행동을 간사한 것으로 보면서 그를 꼬집었는데, 따지고 보면 구준의 말이 비록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전체를 통괄하고 화합시키면서 국정을 이끌어야 할 황제의 입장에서 이렇게 사사건건 다른 사람의 단점을 꼬집는 것이 화합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다시는 그를 고위직에 두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다.

마침 추밀사의 자리에 있던 왕단(王旦)이 몸이 아파서 오래 업무를 보지 못하게 되자, 진종은 억지로 왕단을 불러서 그 후임을 논하였다. 진종은 추밀사의 후임이 누가 좋으냐고 왕단에게 물었더니, “신(臣)을 아는 것은 군주만한 사람이 없으니 오직 밝으신 주군께서 이를 선택하십시오.”라고 그 추천하기를 사양하였다.

이에 진종은 장영(張詠, 946~1015)과 마량(馬亮, 967~1031)을 거론하면서 어떠한지를 물었다. 장영은 바로 구준에게 불학무식하다고 넌지시 말한 사람이고, 마량도 당시에 똑똑하기로 이름난 사람이었다.

그러나 왕단은 선 듯 대답하지 않았다. 마치 나에게 묻지 말고 그냥 임명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태도였다. 그러자 진종은 왕단이 속에 점찍어 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짐작하고 그 사람이 누구지를 물었다.

그런데 황제의 속내를 알고 있는 왕단이 구준을 추천하는 것이 아닌가? 진종의 눈에는 화합을 깨는 성품을 지닌 구준이라는 말에 한동안 어안이 병병하여 아무 말도 못하다가 한참 지나서

마음을 가다듬어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없는 가라고 하였다. 그런데 왕단은 “다른 사람은 신(臣)이 아는 바가 아닙니다.”라고 하며 다른 사람을 천거하지 않았다. 왕단이 어찌 구준의 성품을 몰랐겠느냐는 아마도 구준의 똑똑함이 무직(武職)의 최고위 자리인 추밀사에 적합하다고 생각한 것이었을 것이다. 성품을 본 것이 아니라 능력을 본 것이다. 어쨌든 왕단의 강력한 천거를 받아 구준은 추밀사가 되었다.

추밀사가 된 구준은 여전히 똑똑함을 발휘하였다. 그때에 추밀사는 문직(文職)을 대표하는 자리인 중서령과 쌍벽이어서 이 둘을 이부(二府)라고 불렀는데 중서령은 구준을 추밀사로 강력하게 추천한 왕단이었다.

그 시절에도 사무적으로는 무직과 문직 업무 사이에는 서로 연락할 일이 있게 마련이어서 한번은 중서령에서 추밀원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조령(詔令)의 격식에 맞지 않았다. 똑똑한 구준은 재빨리 황제인 진종에게 보고하였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중서령인 왕단을 헐뜯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무척 똑똑하다는 것을 진종에게 각인시키려고 했는지 모를 일이다.

구준의 보고를 받은 황제는 왕단을 나무랐다. “중서령에서 일을 이처럼 처리하여 이를 사방에 시행하면 어떻게 규칙을 지키겠소!” 황제가 이처럼 왕단을 나무랐으니 구준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될 셈이다. 그러나 왕단은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였다. “이것은 실로 신 등의 허물입니다.” 물론 이 사무를 처리하였던 중서령의 서리(胥吏)들은 모두 벌을 받았다.

이런 일이 있는 다음에 이면에는 추밀원에서 중서령으로 온 공문이 조령의 격식을 어긴 일이 생겼다. 이를 발견하자 추밀사 구준에게 당했던 중서령의 서리들은 추밀사 구준에게 반격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왕단에게 보고하였다. 이 보고를 받은 왕단은 구준처럼 진종에게 가서 바로 보고를 하여 양갈음을 할 한탄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서리들에게 잘못된 서류를 추밀원에 돌려

보내어 제대로 고치도록 하라고만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구준은 자기처럼 황제에게 보고하였더라면 바로 황제로부터 꾸중을 듣게 된 사건을 추밀원에서 저질렀지만 왕단은 이를 거론하지 않고 서류를 고치라고만 하여서 황제에게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지 않게 하였음을 알았다.

구준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황제의 꾸중을 면하게 된 것을 좋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전에 중서령의 실수를 곧바로 황제에게 보고하여 중서령을 꾸중 듣게 하였던 자신이 창피하였다.

이러한 일이 있고서도 왕단은 여전히 구준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황제에게 말하였으나 구준은 왕단의 단점을 살펴보고 기회 있을 적마다 황제에게 왕단의 부족한 점을 거론하곤 하였다. 이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황제는 어느 날 왕단에게 말하였다. “경은 비록 그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지만 저 사람은 오로지 경(卿)의 약한 것을 말하고 있소.”

이 말을 듣자마자 왕단이 구준의 태도에 발끈할 만도 한데 오히려 사과하며 말하였다. “신이 재상의 자리에 오래 있었으니 반드시 빠뜨리고 잃어버린 것이 많을 것입니다. 구준은 폐하를 마주 하면서서 (저의 부족한 점을) 숨기는 바가 없으니 이것이 신이 구준을 중히 여기는 까닭입니다!” 왕단은 자기에게는 당연히 ‘결실필다(闕失必多)’ 즉 부족하고 빠진 것이 많은 것인데, 구준만이 자기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었으니 고맙다는 투였다. 황제는 이로 말미암아서 더욱 왕단을 현명하게 생각하였다.

이 말을 들은 진종은 구준과 왕단은 그 인격의 급(級)이 다른 것을 알았고 구준을 대신할 사람만 있으면 언제든지 바꾸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드디어 조정의 분위기로 보아서 구준은 자기가 파직될 것이라는 눈치 채게 되자 사람을 시켜서 왕단에게 청을 넣었다.

추밀사에서 파직되어 외직으로 나갈 때에 사상(使相)을 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사상이란 절도사 같은 사직(使職)에 있는 사람에게 중서령이나 참지정사 같은 재상의 직함을 얹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절도사라도 재상급 절도사라는 의미를 지닌 것이다.

이왕 외직으로 나가더라도 사상이 되게 해 달라는 구준의 부탁을 받은 왕단은 놀라며 “사상이라는 자리를 어찌 요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하였다. 사실 관리가 스스로 어떤 자리에 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임명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왕단의 말이 백번 옳았지만 구준은 자기의 청탁을 왕단이 거절한 것으로 생각하고 서운한 생각까지 가졌다.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진종은 구준에게 어떤 직함을 주어야 할지 고심을 하면서 왕단에게 물었다. “구준은 아직 30살이 되지 않았는데, 선제(先帝, 태종)께서 발탁하여 이부(二府, 추밀원과 중서령)에 두시었고, 또 제주와 명망을 가졌으니 만약에 사상의 지위를 주어 한 방면에 두신다면 그 풍채는 역시 충분히 조정의 빛이 될 것입니다.” 구준을 사상으로 삼으라는 말이었다.

왕단은 구준을 개인적 관계로 추천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능력으로 보아서 한 지역을 방어 하려면 그만큼 권위를 붙여 주어야 옳고 구준이 적당한 인물이라는 말이었다.

드디어 구준이 외직으로 나가는 제서(制書)를 받는 날 황제에게 가니 사상직(使相職)을 수여하는 것이 아닌가? 구준은 왕단이 거절한 사상직을 받으면서 눈물까지 흘리며 “폐하께서 신을 알아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여기에 이르렀습니까!” 라고 감격해 했다.

그러나 진종은 그 자리에서 그에게 사상을 주라고 권고한 것이 왕단이었음을 밝히었다. 아무 소리 못하고 밖으로 나온 구준은 친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왕자명(王子明, 왕단의 자)의 그릇과 식견은 나 구준이 헤아릴 수 있는 바가 아니요!”

똑똑한 사람은 남의 결점을 보고는 참지 못하고 비판한다. 그러면 비판 받은 사람은 다시 ‘너는?’ 하고 반격을 한다. 그래서 싸움은 더욱 깊어지고 이 다시는 돌아 올 수 없는 관계가 된다. 그런데 왕단은 끊임없이 자기를 헐뜯는 구준을 도리어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으로 이해하였고, 기회가 있을 때면 구준의 능력만을 보고서 천거하였다. 자기와의 개인적 관계를 본 것이 아니고 능력만을 본 것이다.

이것은 수양된 왕단의 인격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자기가 비판받을 때에는 ‘결실필다’라고 겸손해 하였고, 남을 추천할 때에는 그 사람의 능력만을 보았다.

다른 사람의 비판을 받을 때에 ‘그래 나는 완전하지는 않지. 부족한 것이 많아, 좋은 지적해 주어서 고마워!’ 라고 할 수만 있다면 수양을 제대로 한 사람이겠고 이러한 사람이 똑똑하기까지 하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그런데 똑똑한 데서 그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보이는 것은 내가 잘못 본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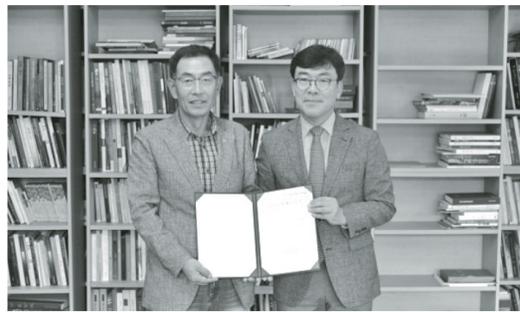
결실필다를 인정하는 왕단 같은 지도자가 한 명만 있어도 우리사회는 분열될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다른 사람을 볼 때에는 그 사람의 장점만 보고, 자기 자신을 볼 때에는 자기의 부족한 점을 먼저 보려는 사회분위기가 언제쯤 나타날까?

권오길씨 국립대구박물관에 어사화와 교지 등 24점 자료 기증

권오길씨는 국립대구박물관(관장 홍진근)에 어사화와 교지 등 24점의 자료를 기증했다. 대구박물관은 기증 자료들을 보존처리한 후 향후 전시할 예정이다. 어사화는 과거 시험을 알리는 대표 상징물이다. 삼일유가三日遊街라 하여 여러 장소를 행차할 때, 모자인 관모 위에 장식하는 용도로 쓰였다.

교지는 나라에서 관직에 내리는 임명장으로 재임기간 중에 받은 16장이 보관함 속에 온전히 보관되었다. 교지에 쓰인 연호들을 참고해 볼 때 기증받은 자료는 조선 정조 임금 때 제작된 것이다. 함께 기증받은 경서통은 사서오경의 문구를 하나하나 대나무에 새겨 원통모양의

함에 보관한 것으로 선비들의 암기용으로 쓰였다. 그리고 시험 문답지를 포함하여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도 확인되었다. 기증받은 자료들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네 선현들의 과거 시험 준비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권오길 기증자(왼쪽), 홍진근 국립대구박물관 관장(오른쪽)



기증유물(어사화, 경서통, 교지통)(국립대구박물관)

광고, 독자투고, 구독신청하세요

안동권씨 종보에서는 기업광고, 단체모임 등의 광고와 독자들의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광고, 독자투고, 구독신청 연락처

▶ ☎ 02-2695-2483~4 ▶ FAX: 02-2695-2485

▶ E-mail : ankwon2695@naver.com

andongkwonmun@daum.net

◆ 종보 대금 납부 계좌번호 : 033237-04-006941(국민)

안동권씨 대종회

서울마포종친회 총회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화목·건강·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마포종친회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 일 시 : 2018년 12월 9일(일) 오전 12시
 - ◆ 장 소 : 우기촌(가마술설령탕)02-702-5047, 010-5358-2840
 - ◆ 오시는길 : 지하철5호선 공덕역5번 출구 · 지하철6호선 공덕역6번 출구
 - ◆ 연 락 처 : 회장 권승구 02-718-8437, 010-6271-8437, 총무 권경택 010-3796-4047
- 2018년 12월 1일

안동권씨 마포종친회 회장 권 승 구

서울산악회 정구산행 안내 (제290차)

- ◆ 일 시 : 2018년 12월 16일 오전 10시(매월 3주째 일요일)
 - ◆ 등 산 지 : 앵봉산
 - ◆ 집결장소 : 지하철 6호선 증산역 대합실 ※ 시간 엄수 바랍니다.
 - ◆ 준 비 물 : 간편한 옷차림 등
 - ◆ 산행이 끝난 후 2018년도 송년회가 개최됩니다.(송년회 장소는 연신내역 부근)
- 회 장(권중훈): 010-4037-6656 등반대장(권오준): 010-3718-4204
사무국장(권오준): 010-3261-2570

2018년 12월 1일

안동권씨서울산악회 회장 권 중 훈